

# COVID-19 이후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대중매체 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이윤주<sup>1\*</sup>, 이해선<sup>2</sup>, 박지은<sup>2</sup>, 권보민<sup>2</sup>, 최하은<sup>2</sup>  
<sup>1</sup>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2</sup>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 The Effect of Media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e Image of Health and Non-health Students after COVID-19

Yunju Lee<sup>1\*</sup>, Hyeseon Lee<sup>2</sup>, Jieun Park<sup>2</sup>, Bomin Kwon<sup>2</sup>, Haeun Choi<sup>2</sup>  
<sup>1</sup>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JEI University  
<sup>2</sup>Student, Dept. of Nursing Science, J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간호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는 수도권 4개 대학의 보건계열 133명과 비보건계열 12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11월 28일까지 수집하였다. 본 자료는 SPSS 22.0 Program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 중 보건계열 대학생의 1학년 여부가 간호사 이미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2.82, p=.006$ ).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모두 대중매체 이미지, 전공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보건계열 대학생은 대중매체 이미지, 전공만족도, 1학년 여부가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F=40.42, p<.001$ ) 비보건계열 대학생은 대중매체 이미지만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0.13, p<.001$ ). 간호사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뉴미디어를 통한 대중매체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대중매체, 대학생, COVID-19

**Abstract** The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image of nurses in health and non-health university students after COVID-19. The study was collected from November 15, 2021 to 2021 and 28th, 2021, from 133 health-related and 123 non-health-related students in four universities. This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whether the nurse im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s in the first grade of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t=2.82, p=.006$ )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nurse image of college studen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mass media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in both health and non-health fields. For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the image of mass media, major satisfaction, and first grade influence the image of nurses ( $F=40.42, p<.001$ ) In the case of university students in non-health departments, it was found that only the media image affects the nurse image. ( $F=20.13, p<.001$ ). In order to improve the image of nurses, it is necessary to have continuous interest in contact with the media through new media and to approach it systematically.

**Key Words** : Nurse image, Major satisfaction, Image of mass media, University student, COVID-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COVID-19)의 발생

으로 인해 대중들은 다양한 마스크를 통해 전염병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의 모습을 시시각각으로 만나게 되었다 [1,2]. 그 가운데에서도 COVID-19 최전선의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인력 부족과 물품 부족 등의 매우 열악한 상

\*Corresponding Author : Yunju Lee(daminzimin@naver.com)

Received September 12, 2022

Accepted December 20, 2022

Revised October 4, 2022

Published December 28, 2022

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쪽잡과 반창고 투혼', '봉대투혼'[3]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COVID-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보도들은 간호사의 역할이나 이미지를 재조명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이미지란 어떠한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인상, 지식 또는 평가의 집합체를 뜻하며, 태도를 형성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4]. 이러한 이미지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존재하며, 주관적인 이미지가 고착화 되어 선입견처럼 자리 잡아 개인의 생각이나 태도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4,5]. 특히, 이러한 이미지가 특정한 직업에 각인이 되면 그 직업이 수행하는 역할과 해당 분야의 직업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4,5].

간호사 이미지는 사람들이 간호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모습이나 인상, 느낌, 생각의 종합이다[6]. 간호사 이미지는 한 명의 간호사의 이미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작게는 직무만족도부터 간호전문직이라는 전체적인 이미지와 간호 실무확립, 간호전문직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7,8].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병원에 내원하거나 간호사와 접촉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경험과 대중매체나 가족, 지인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다양한 간접적인 경험[9], 그 외 제도적 요인, 간호사의 외모,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이 있다[5].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중들이 백의의 천사, 모성애적 돌봄, 희생과 봉사정신, 여성의 직업 등 전통적인 이미지로서 두드러지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11], TV나 인터넷 등에서 보이는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적인 역할, 성적 대상화, 덜 전문적인 직업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가되기도 하였는데[7,8,12], 대중매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대중매체는 일상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시공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8].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대중매체를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전달받은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9]. 이런 이유로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대중들의 태도, 행동, 가치관 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12].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을 조사한 연구[13]에서 긍지자부심, 사회기여의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COVID-19 감염병 대유행의 상황에

서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보건의료인의 사회적 기여를 눈으로 보게 되며 긍지자부심도 가지고 직업가치를 강화하는 계기를 갖고 있다.

간호학과 대학생은 간호사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대중매체 같은 간접적 경험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12]. 간호학과 대학생이 가지는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로서의 전문직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간호학과 대학생들이 교육과정을 거치며 간호에 대한 가치 변화를 경험하면서 간호사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14]. 간호학을 제외한 다른 보건계열의 대학생들도 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이나 관련 비정규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 및 보건의료직종에 대해 학습하면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비보건계열의 대학생들은 간호사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COVID-19 발생과 감염병의 지속으로 인해 대중매체를 통해 대학생들이 기존보다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보건계열의 대학생은 미래에 간호사와 함께 근무하는 동종계열의 동료가 될 수 있고, 비보건계열의 대학생은 간호사와 대상자로, 즉 치료적인 관계로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학생들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추후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간호사 이미지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간호학과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고, 보건계열이나 비보건계열의 대학생들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이 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COVID-19를 경험한 시점에서는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이후 진로선택에도 매우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14]. COVID-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 상황에서 요구되는 직종에 대한 관심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동일 상황에서 타격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대해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해당 전공만족도도 낮아지고 취업스트레스가 상승하게 되었다[16].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7]. 대학생들이 갖는 전공만족도가 미래에 전문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될 수 있는 간호사들에

대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보건계열의 직업군에 대한 요구도나 중요성은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호텔항공서비스 계열이나 인문사회계열 등을 포함한 비보건계열의 종사자에 대한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16]. 이런 현상은 비보건계열에 포함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부각되는 의료인, 그 중에서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이후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중매체 경험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계열별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 1)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2)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대중매체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 차이를 파악한다.
- 3)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한다.
- 4)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별 대중매체 이미지, 전공만족도가 간호사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전공만족도, 대중매체 이미지와 간호사 이미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 내 4년제 종합대학 1곳, 전문대학교 2곳에 재학중인 보건계열학생과 비보건계열 학생으로, 해당 대학 내 설문조사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보건계열은 간호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

과, 작업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보건행정학과, 의무기록학과 등 이었고, 비보건계열은 간호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과로, 공학과, 예체능계열 등이었다. 표본 크기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단간 차이를 파악하기에 필요한 중간 효과 크기 .50, 유의 수준 .05, 검정력 .95을 기준으로 필요한 표본 수에 대해 확인한 결과 집단간 최소 88명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간호전공과 비전공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 연구[7]에서 집단별 평균값(표준편차)은 각각 2.29(.816), 2.64(.657)이었으며 이 경우 효과크기는 .472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유의 수준 .05, 검정력 .95을 기준으로 한 경우 최소 118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257명에게 자료 수집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1부를 제외하여 256부를 사용하였다. 계열별 참여는 보건계열 133명, 비보건계열 123명으로 확인되어 최소기준을 충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 9문항, 전공만족도 18문항, 대중매체 이미지 12문항, 간호사 이미지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67문항이었다.

#### 2.3.1 전공만족도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Kim과 Ha[18]가 개발한 도구에서 Lee[19]가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Chronbach's  $\alpha$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Ch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2.3.2 대중매체 이미지

대중매체 이미지는 Shin과 Kim[5]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도표 평정척도로 1점에서 7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중매체를 통한 간호사 이미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과 Kim[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는 .95이었고 본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는 .84이었다.

### 2.3.3 간호사 이미지

Yang[20]이 개발한 도구로 총 28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통적 이미지 12문항, 사회적 이미지 7문항, 전문적 이미지 6문항, 개인적 이미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Yang[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도구 신뢰도 Chronbach's  $\alpha$ 는 .93이었다. 하위요인의 Chronbach's  $\alpha$ 는 전통적 이미지 .90, 사회적 이미지 .77, 전문적 이미지 .831, 개인적 이미지 .82였다.

###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11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COVID-19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구글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각 대학의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대학커뮤니티에 해당 설문조사에 대해 링크 주소를 탑재하고 연구관련 설명문을 게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진행되고 언제든지 설문을 철회할 수 있음도 내용에 포함하였다.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동의한 경우 구글 설

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구분을 위해 단답식으로 전공학과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해당 자료는 익명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입력자료를 코드화하여 최대한 비밀을 보장하였으며 자료분석이 완료되고 연구가 종료된 후 폐기하였다. 비대면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감사쿠폰을 모바일로 제공하기 위해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만 연락처를 받았으며 제공한 후 연락처에 대한 정보는 폐기하였다.

### 2.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Program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전공만족도, 대중매체 이미지와 간호사 이미지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는 t-test, ANOVA 및 Scheffe 사후검정을 이용하였다.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대중매체 경험과 간호사 이미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를 이용하였다.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Health department(n=133)	Non-health department(n=123)	x2 or t	p
		n(%) or M±SD(range)	n(%) or M±SD(range)		
Gender	Female	117(88.0)	96(78.0)	-2.11	.036*
	Male	16(12.0)	27(22.0)		
Age(years)		22.9±3.76(19-47)	21.4±1.67(20-28)	1.93	.056
Grade (year)	1st	70(52.6)	58(47.2)	-0.97	.335
	2nd	36(27.1)	36(29.3)		
	3rd	17(12.8)	16(13.0)		
	4th	10(7.5)	13(10.6)		
Subjective income	High	8(6.0)	15(12.2)	-1.52	.129
	Medium	105(78.8)	93(75.6)		
	Low	20(15.0)	15(12.2)		
Perceived health status	Not very good	0(0.0)	0(0.0)	1.44	.150
	Not good	14(10.5)	18(14.6)		
	Moderate	42(31.6)	42(34.1)		
	Good	59(44.4)	52(42.3)		
	Very good	18(13.5)	11(8.9)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No	68(51.1)	77(62.6)	1.86	.064
	Yes	65(48.9)	46(37.4)		
Experience of caregiver role	No	68(51.1)	81(65.9)	2.41	.017*
	Yes	65(48.9)	42(34.1)		
Nurse among family or relatives	No	94(70.7)	91(74.0)	.59	.557
	Yes	39(29.3)	32(26.0)		
Image in mass media	Printed media	5(3.8)	6(4.9)	1.62	.107
	Video media	48(36.1)	55(44.7)		
	New media	80(60.2)	61(49.6)		
	Voice media	0(0.0)	1(0.8)		

\*  $p < .05$

### 3. 연구결과

#### 3.1 계열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 가족의 병원 입원시 보호자 역할 경험 여부에 대해 계열별 차이를 보였으나 그 외 나이, 학년, 소득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입원 경험, 보호자 역할 경험, 가족이나 친척 내 간호사 유무, 간호사를 경험한 대중매체 유형에 대해 계열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1). 세부적으로 여학생은 보건계열이 88%, 비보건계열은 78%였으며 나이는 두 계열 각각 22.9세, 21.4세였다. 학년은 모두 1학년의 참여가 많았으며 소득수준은 '중'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두 계열 모두 ' 좋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입원경험은 보건계열이 48.9%, 비보건계열은 37.4%였다. 가족의 병원입원으로 보호자 역할을 한 경험의 비율은 보건계열 48.9%, 비보건계열 37.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이나 친척 중 간호사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건계열은 29.3%, 비보건계열은 26.0%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보거나 들은 주요 매체는 두 계열 모두 뉴미디어에 속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유튜브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 3.2 계열별 변수간 비교

계열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전공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는 보건계열 대학생이 비보건계열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간호사 이미지의 하위요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 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보건계열의 대학생이 비보건계열 대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중매체 이미지는 계열간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2).

Table 2. Degree of nurse image of research variables

Characteristics	Health department (n=133)	Non-health department (n=123)	t	p
	Item M±SD	Item M±SD		
Major satisfaction	4.3±0.50	3.8±0.65	6.10	.000***
Social image	3.8±0.65	3.5±0.70	3.58	.000***
Professional Image	4.6±0.48	4.4±0.58	2.28	.022*
Personal image	4.0±0.79	3.9±0.91	1.59	.113

\*  $p < .05$ , \*\*  $p < .01$ , \*\*\*  $p < .001$

#### 3.3 계열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는 1학년 여부( $t=2.82, p=.006$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1학년인 경우 간호사 이미지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비보건계열 대학생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Table 3).

#### 3.4 계열별 변수간의 상관관계

보건계열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는 대중매체 이미지와 강한 상관관계( $r=.61, p<.001$ )를 나타내었고, 전공만족도와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44, p<.001$ ).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는 대중매체 이미지와 양의 상관관계( $r=.58, p<.001$ )를 나타내었고, 전공만족도와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28, p<.001$ ). 특히, 두 계열 대학생의 대중매체 이미지는 간호사 이미지

Table 3. Comparison of nurse im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Health department (n=133)				Non-health department (n=123)			
		M±SD	Item M ±SD	t or F	p	M±SD	Item M±SD	t or F	p
Gender	Female	116.6±14.02	4.2±0.50	-0.43	.647	111.3±15.28	4.0±0.19	0.60	.554
	Male	118.3±12.68	4.2±0.45			108.8±20.06	3.9±0.72		
Freshman	Yes	120.0±12.48	4.3±0.45	2.82	.006**	112.6±16.63	4.0±0.59	1.16	.249
	No	113.4±14.54	4.1±0.52			109.1±16.13	3.9±0.58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Yes	118.5±14.02	4.2±0.50	-1.33	.187	109.0±14.59	3.9±0.52	1.00	.340
	No	115.3±13.61	4.1±0.49			111.8±17.39	4.0±0.62		
Experience of caregiver role	Yes	118.1±15.51	4.2±0.44	-1.02	.310	112.6±12.53	4.0±0.36	-1.03	.306
	No	115.7±12.05	4.1±0.34			109.8±18.07	3.9±0.52		
Nurse among family or relatives	Yes	115.2±14.16	4.1±0.40	0.86	.380	110.3±20.00	3.9±0.57	0.18	.861
	No	117.5±13.74	4.2±0.39			110.9±15.00	4.0±0.43		
Perceived health status(below average)	Yes	114.5±14.20	4.1±0.41	-1.69	.094	108.0±13.86	3.9±0.40	-1.84	.069
	No	118.6±13.42	4.2±0.38			113.4±18.21	4.1±0.52		
Mass media	Printed media <sup>a</sup>	104.8±21.5	3.7±0.61	2.22	.113	98.3±35.27	3.5±1.01	2.00	.146
	New media <sup>b</sup>	116.7±13.42	4.2±0.38			110.6±15.61	4.0±0.45		
	Voice media <sup>c</sup>	118.4±13.36	4.2±0.38			112.1±14.35	4.0±0.4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of participants

Variable	Health department (n=133)						Non-health department (n=123)						
	1	2	3	3-1	3-2	3-3	1	2	3	3-1	3-2	3-3	3-4
	r												
1. Image in mass media	1						1						
2. Major Satisfaction	.27**	1					.32***	1					
3. Nurse image	.61***	.44***	1				.58***	.28***	1				
3-1. Traditional image	.62***	.40***	.94***	1			.57***	.25**	.96***	1			
3-2. Social image	.45***	.36***	.83***	.67***	1		.40***	.26**	.82***	.69***	1		
3-3. Professional image	.52***	.45***	.83***	.72***	.64***	1	.53***	.27**	.81***	.73***	.53***	1	
3-4. Personal image	.28**	.20*	.53***	.44***	.22*	.34***	.41***	.18*	.74***	.69***	.45***	.52***	1

\* $p < .05$ , \*\* $p < .01$ , \*\*\* $p < .001$

하위요인 중 전통적 이미지와 전문적 이미지와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두 계열 모두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과 간호사 이미지와의 상관관계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Table 4).

### 3.5 계열별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 Dubin-Watson 통계량이 계열별 각각 2.103, 1.950으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고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0.1이상, 분산팽창인자가 10이하로 문제가 없었다(Table 5). 계열별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건계열 대학생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47.3%였고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경우 33.1%였다. 보건계열 대학생은 대중매체 이미지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1학년인 경우가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F=40.42, p < .001$ ) 비보건계열이 경우 대중매체 이미지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F=20.13, p < .001$ ).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e nurse image of university students

Variable	Health department (n=133)			Non-health department (n=123)		
	$\beta$	t	$p$	$\beta$	t	$p$
Image in mass media	0.62	7.815	<.001***	0.72	6.880	<.001***
Major Satisfaction	0.45	4.404	<.001***	0.15	1.382	0.170
Freshman	-4.77	-2.714	0.008**	-2.09	-0.860	0.391
	Adj. $R^2=.473, F=40.420, p < .001$			Adj. $R^2=.331, F=20.132, p < .001$		
Tolerance	.920-.989			.895-.993		
VIF	1.011-1.087			1.007-1.117		
Durbin Watson	2.103			1.95		

## 4. 논의

본 연구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간호사 이

미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계열별 간호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보건계열의 경우 4.3점, 비보건계열은 3.8점으로 보건계열의 전공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COVID-19 발생 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점수 3.7점[21], COVID-19 발생 후 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3.99점[22]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COVID-19가 발생되고 지속되는 가운데,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료보건 종사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대중매체를 파악한 결과,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으로 높았다. 이는 2014년 대학생의 간호사 정보 접촉 매체에 대한 결과에서 TV(88.5%), 인터넷(10.2%) 순으로 나타난 연구[7]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사이버 대중으로서의 대학생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관계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관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거나 관심 동영상을 통해 정보 수용의 맥락을 이어나가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23]. 앞으로 TV나 신문 등을 통한 전통적 매체보다는 뉴미디어를 통해 간호사를 간접적으로 접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세대를 위해 간호사를 제대로 알려주거나 보여줄 수 있는 뉴미디어를 통한 채널의 운영 및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이미지에 미치는 대학생의 대중매체 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열별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각각 4.9점, 5.0점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간호사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중매체 이미지는 간호사 이미지와도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COVID-19 이전 20세에서 60세 미만의 일반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5]의 3.89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였다. 2020년 1월부터 COVID-19가 지속되는 가운데, 간호사 관련 기사가 증가하였으며, 의료 환경은 열악하지만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호의적인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졌다[1,9].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들도 뉴미디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나 영상들을 많이 접촉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 영향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계열간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는 계열과 관계없이 전문적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COVID-19 이전 간호전공학생과 비전공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를 본 연구[7]와 하위요인별 간호사 이미지는 점수의 순서는 동일하였다. 계열별로 구분한 본 연구와의 대상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비교를 해 본 결과, 두 계열별 모두 하위요인별 간호사 이미지가 상승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의 이미지 중 개인적 이미지는 '불친절한 면', '이기적인 면', '짜증 내는 면'에 대한 정도인데, COVID-19이후 계열에 관계없이 간호사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인식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계열 대학생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1학년일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보건계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 영향 요인을 파악한 연구가 없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0]에서 전공만족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간호사 이미지를 연구에서 학년별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연구[24]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이는 연구의 대상자 수에서 학년별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보건계열의 대학생은 주로 2학년부턴 전공기초 교과목을 통해 전공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접하며 전공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 이에 고학년 보건계열 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함께 하는 연합봉사 동아리나 연합행사 등을 통해 이미지 제고 활동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간호사의 이미지 정도와 낮은 수준으로 연관성을 보였으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다.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관련 종사자에 대한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의 간호사 이미지도 변화할 수는 있었으나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의

직접적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계열에 관계없이 대학생의 대중매체 이미지가 간호사의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COVID-19가 발생되기 전에도 간호사들은 의료현장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COVID-19 이전의 간호사 관련 기사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학대 사건의 가해자 또는 의료과실 관련 등 극단적인 상황을 부각한 부정적인 주제를 주로 보도하다보니[2] 간호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아지기도 하였다.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25]에 따르면, 대중매체에서 전이나 감염병의 대유행과 같은 재난상황을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이 위협되는 상황이 될 때, 유독 간호사가 책임을 지는 의료인으로서 보도된다고 하였다. 간호사가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특정한 시기에만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음에도 말이다.

이처럼, 대중매체에서 어떻게 간호사 이미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대중들에게 간호사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12], 간호사 관련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기사가 많아질 경우, 대중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대학생들은 TV나 신문 등의 전통적 매체가 아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및 1인 온라인 방송 등 뉴미디어를 통해 간호사와 관련된 보도나 내용을 접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방송에서 제공되고 있는 간호사 관련 내용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편향된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수도권 지역의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결과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또한,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간 간호사의 이미지에 영향 요인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요인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중매체 이미지가 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에 비해 보건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중매체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대

중매체 이미지, 전공만족도와 1학년 여부였으며 이 모형은 47.3%의 설명력을 보였다.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는 대중매체 이미지만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고 33.1%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제고를 위해 간호사가 나오는 대중매체물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거시적 관점에서 영상물 제작 및 체계적인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간호학과를 포함한 보건계열 대학생의 경우 전공만족도가 간호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부과정에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H. N. Choi, E. G. Oh & J. Y. Lee. (2021). The Image of Nurses in Newspaper Articles during COVID-19 Era.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11), 626-637. DOI : 10.5392/JKCA.2021.21.11.626
- [2] M. Y. Park, S. H. Jeong, H. S. Kim & E. J. Lee. (2022). Images of Nurses Appeared in Media Report Before and After Outbreak of COVID-19: Text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2(3), 291-307. DOI : 10.4040/jkan.22002
- [3] J. H. Kim. (2020). *Look at this picture. AFP "The bandages on the faces of nurses in Daegu are badges of honor"*, Legal broadcast news. Retrieved from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7499>.
- [4] K. H. Yang, G. Y. Choi, Y. S. Yoon, E. H. Jo & S. J. Park. (2020).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Image of a Nurse. *Korean Society of Nursing Research*, 4(4), 41-52.
- [5] M. S. Sin & N. H. Kim. (2012). Image Perceived by the Public: Subjective Image of Nurses and the Image of Nurses in Mass Medi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2), 937-948.
- [6] E. J. Heo, E. J. Kim, M. N. Park & J. Y. Jong. (2020).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the Nursing Image in Korea.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5), 2257-2271. DOI : 10.22143/HSS21.11.5.162
- [7] S. Y. Yu. (2014). What is Perceived the Image of Nurses?: Comparison Major and Non-Major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0), 353-361. DOI : 10.14400/JDC.2014.12.10.353
- [8] H. Lee, H. S. Lee, Y. H. Yom, J. M. Lee, W. S. Jung & H. J. Park. (2016). A Study of the Image of Nurse through Analysing Linking Words of Nurse in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2(2), 173-182. DOI : 10.22650/JKCN.2016.22.2.173
- [9] J. S. An. (2021). Analysis of Image of Nurses on Articles in Korean Daily Newspapers after Corona Pandemic.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7(1), 66-74. DOI : 10.17703/JCCT.2021.7.1.66
- [10] S. E. Oh, H. J. Lee & J. Y. Lee. (2018). Nurses' Image perceived by College Nursing Students : Q-Methodologica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7), 192-199. DOI : 10.5762/KAIS.2018.19.7.192
- [11] Y. S. Song, Y. M. Kim, H. J. Chae, B. R. Lee, H. J. Kim, J. S. Son, Y. R. Jeon & J. E. Ma. et al. (2015). Images for Nurses by the General Public.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19(1), 53-61.
- [12] Y. H. Yom, G. H. Kim, H. S. Son, J. M. Lee, J. H. Jeon & M. A. Kim. (2015). An Analysis of the Image of Nurses Portrayed on Korean TV Drama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1(3), 412-423. DOI : 10.22650/JKCN.2015.21.3.412
- [13] H. Park. (2011). A Study on the Work Value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ealthCare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5(4), 95-111
- [14] Y. H. Kim & Y. C. Kwon. (2018). The Effect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Nurse image, in Nursing Students Perceiv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2), 215-224. DOI : 10.14400/JDC.2018.16.2.215
- [15] H. J. Choi. (2016).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Image of Nurses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0(4), 225-237. DOI : 10.12811/kshsm.2016.10.4.225
- [16] S. M. Hong. (2021).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the Hospitality Industry o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36(6), 1-24. DOI : 10.12811/kshsm.2016.10.4.225
- [17] Y. H. Kim & N. Y. Kim. (2021). Influencing Factors the Nurse Image Recognized by Nursing Students on Major Commitment, *Journal of the Korean Oil*

*Chemists' Society*, 38(5), 1314-1324.  
DOI : 10.12925/jkocs.2021.38.5.1314

- [18] K. H. Kim &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19] D. J. Lee.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YONSEI University, Seoul.
- [20] I. S. Yang. (1998).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4(2), 289-306.
- [21] Y. J. Kim. (2020).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Communication Skills,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4(8), 265-276. DOI : 10.21184/jkeia.2020.12.14.8.265
- [22] E. S. Ju, & Y. S. Bang, (2021). A Study on Academic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ealth Scienc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5), 1593-1604. DOI : 10.22143/HSS21.12.2.120
- [23] D. H. Lee. (2009). The Young Generation as the Cyber-Public - Their Social Communicability and Engagement,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3(2), 409-448.
- [24] S. M. Choi. (2018). Comparison of Nurse' Image among by Grad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2(1), 32-35.
- [25] S. A. Park, S. J. Park, C. M. Lee, M. R. Yun & G. Y. Hwang. (2017). Image of Nurses Portrayed in Internet Newspapers. *Culture and Convergence*, 39(6), 677-700.

**이윤주(Yunju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 2008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4년 2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14년 3월~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우울, 자살, 정신건강, 직장내괴롭힘
- E-Mail : daminzimin@naver.com

**이혜선(Hyeseon Lee)** [정회원]



- 2020년 2월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입학
- 2022년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중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간호사 이미지
- E-Mail : hokefoke@naver.com

**박지은(Jieun Park)** [정회원]



- 2020년 2월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입학
- 2022년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중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간호사 이미지
- E-Mail : yikes0504@naver.com

**권보민(Bomin Kwon)** [정회원]



- 2021년 2월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입학
- 2022년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중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간호사 이미지
- E-Mail : rnjsqhals02@naver.com

**최하은(Haeun Choi)** [정회원]



- 2021년 2월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입학
- 2022년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중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간호사 이미지
- E-Mail : teacher-@naver.com